

# “무주반딧불시장서 축제 즐겨요”

27~29일 농특산물 특화장터·송어잡기 축제

27일 무풍면 대덕산장터 한마당 축제도 개최

제4회 무주농특산물 특화장터와 송어잡기 체험 행사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온다. 무주반딧불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도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시장(상인회장 박용식)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정병희)이 주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축제는 “볼수록 매력적인 시장, 여기 어때? 무주반딧불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다.

총 3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무주군 대표 특산물인 첨미를 비롯해 각종 약초와 나물, 시과 등 과일, 그리고 고추와 고수, 호두, 견과류, 면류와인 등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27일에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에이스 난타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무대 등이 마련되며 28일에는 국악한마당, 마술쇼, 무주예인 공연이, 29일에는 반디노래자랑이 개최된다.

또 맨손송어잡기(즉석 송어회 & 구

이먹기)를 비롯해 보부상 경매 & 추첨, 보부상 유랑단 반디 포토존 행사를 3일간 즐길 수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승하 과장은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기족들과 방문하기 좋은 전통시장 17곳’ 등에도 선정된 무주반딧불시장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이다. 전통시장이 재밌고 가볼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주반딧불시장 축제에 꼭 오셔서 가을걷이로 풍성해진 시골 정취도 느껴보시고 무주반딧불농특산물의 우수성, 무주반딧불시장의 매력도 꼭 경험해보시라”고 전했다.

무풍면 대덕산장터에서도 27일 제2회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무풍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사과 등 무풍면 특산물을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되며 마을별 민속놀이대회를 비롯해 노래자랑과 마을(단체)별 먹거리 및 사과와인 시음 등의 행사가 열린다.



무주반딧불시장 축제 포스터

다.

한편, 무주군에는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등 4개 읍면에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5일장으로 무주반딧불시장은 1일과 6일, 무풍면 대덕산장터는 3일과 8일, 설천면 삼도봉장터는 2일과 7일, 안성면 덕유산장터는 5일과 10일이 장 날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청년 레벨업 사업 추진

청년발전기금 활용 지역 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지원

장수군이 청년단체·기업 주도의 지역 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을 위해 장수 청년 레벨업(Level Up)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올해 첫 시행하는 장수 청년 레벨업(Level Up) 사업은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하고 있는 30인 이상의 청년단체·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한 곳에 각 1,000만원을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대상과 지원 분야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0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군 청년마테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brm092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과 연계한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단체의 수익 창출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지역 자원 활용 아이디어가 발굴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장수의 특성과 자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을 만들어 나가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단체·기업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단  
향자우 아시안 패러게임 출전

장수군장애인체육회(군수 최훈식)는 도쿄 패럴림픽 은메달 획득에 이어 10월 22일부터 28일 까지 중국 향자우에서 개최되는 제4회 향자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향자우 아시안 패러게임에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선수단 이근우 선수, 백영복 선수가 출전한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단은 제4회 향자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학습 훈련을 하며 메달획득을 목표로 훈련해 왔다.

국가대표 이근우(TT6체급), 국가대표 백영복(TT3체급) 선수는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했으며,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영식 이후 향자우로 출국했다.

최훈식 회장은 “전북 유일의 장애인체육팀인 장수군장애인체육회선수단이 제4회 향자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응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시장 토요특화장터 8회차 다채롭게 운영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21일, 진안고원시장 점포동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장 엄용호)의 일환으로 토요특화장터 8회차를 추진했다.

이번 토요특화장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6가지(떡갈비만들기, 마크리메그립톡 만들기, 손잡이 바구니 만들기, 핸드폰 가방 만들기, 할로윈 쿠키 만들기, 데코 캔들 만들기)와 플리미케(장식품 및 산약초 주류, 리본 공예품, 마크리메 및 수세미, 티매트 및 가방 판매)를 운영했다.

토요특화장터는 5천원의 체험비를 내고 체험을 하면 플리미케 및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의 쿠폰을 제공해 사실상 무료체험 가능하다.

8회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며 관내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퍼져 행사장을 찾는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어울려 체험을 즐기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체험프로그램이 매회 조기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행사 시작 전에 서둘러 온다는 체험객도 많이 보였다.

다음 토요특화장터는 11월 18일과 19일에 치러지는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와 함께 열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마을축제로 진안 고원 백운 사과 축제 열려

백운사과작목반이 주관한 ‘진안군마을축제로 진안 고원 백운 사과 축제’가 지난 20일 백운면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사과작목반 및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07년 15개 농가로 시작된 백운사과작목반은 현재 45개 농가가 가입돼 꾸준한 활동을 하며 백운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과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사과 활용의 다각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날 축제장에는 관내 유·초등학생이 참가해 사과 껍질 깎아보기, 애플 캐리멜 만들기 체험, 다양한 종류의 사과 시식 등을 진행했으며 사과작목반이 준비한 사과 푸딩 만들기 DIY 키트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열려

장수군은 지난 20일 장수 의암공원 이외무대에서 ‘2023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한계 더하는 유품장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수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깨닫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회합의 장에서는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각자의 삶의 예술인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담은 무드등 만들기 진행됐으며, 2부 교류의 장에서는 저녁 만찬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화와 인터뷰로 꾸며졌다.



3부 함께 즐기는 장은 디너쇼 형식으로 인팝페라 그룹 치열로의 리더 테리, 정지연 국악 트리오, 장수군 귀촌 예술인과 지역 출신 전문 예술인 등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품격 있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 성황리 개최

원반 열차마을 구판장서 새로운 마을 사업 시작 알리는 준공식과 함께 열려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백운면 원반마을 주민이 주관하는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가 지난 22일 백운면 원반 열차마을 구판장 앞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반마을은 쇠전공연을 통해 개회식 및 준공식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 이장의 해설을 통해 마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마을사업으로 시작해 또 하나의 마을 상장이 될 기회를 소개해 주는 기차 투어를 진행했다.

열차마을 구판장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258㎡ 규모로 조성됐으며 원반마을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추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군은 이를 통해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떡메치기와 마을에서 준비한 역장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기차 안에서 추억의 사진 남기기 프로그램



한편, 진안군마을축제는 각 마을의 지원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마을별 축제를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28개 마을 및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진행 중에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